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계획 반대 결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6일 김관수 의원 등 18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2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12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관 수 의원)

□ 주 문

- 서울시와 강서구 및 한국공항공사 등이 추진하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회수가 2000년도에 639편에서 2005년도 에는 260편으로 감소하였으나,
-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이 증편될 경우 항공기 소음 직접 피해 지역인 오정구 고강동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며,
-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공해는 지역주민의친환경적 도시공간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기본적 생활권마저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고통을 안겨주는 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은 정부방침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와 정책에 상반되고 김포공항의 국제 전세편 운영규정에도 위배되므로 김포공항의 국제선 신설과 증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임.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이나 증편하는 세부적 사항은 알고 있는지 ? ○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이라고 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설이나 증편에 대한 계획은 있지 않으며, 기본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주민들의 요구에 신설된 것이 아니며, 정부 방침에 의해 만들어 진것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서구에서는 신설, 증편을 요구하는 사항임. ○ 고강동 지역으로써 소음피해에 대해 고통이 지나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국지적 민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넘비현상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려될 소지가 있음.
-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다수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김포공항의 효율적 이용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등 이용 측면도 고려해야 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제68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발의년월일 : 2006. 12. 6.

발 의 자 : 김관수 등 18인

1. 주 문

서울시와 강서구 및 한국공항공사 등이 추진하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2.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2000년에 1일 639편에서 2005년에는 260편으로 감소하였으나,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이 증편될 경우 항공기 소음 직접 피해지역인 우리 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가중되고 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함.

○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은 정부방침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정책에 배치되고 김포공항의 국제전세편 운영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부천시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추진계획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강서구에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 따로붙임 :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문안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문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는 선사 유적지와 수주 변영로 시비가 상징하듯 유구한 부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가치있는 지역이며, 서울 서부권에 근접하여 지역발전의 기대치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나, 김포공항이 본격적인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하여 부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자 변두리 지역으로 급격하게 변모하였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토해내는 소음에 TV 시청과 전화통화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도 장애를 받고 수면방해로 인한 불면증, 노이로제, 난청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공항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가치도 하락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나마 다행이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줄어 최소한의 생존권을 되찾아 가는 희망으로 주민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경기도 1차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강서구 및 한국공항공사 등이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생존권 침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부천시민을 비롯한 공항인근의 서울, 인천, 경기지역 주민들은
그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으
나 이제는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당연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항중인 일본 하네다 노선과 연계하여 베이징 등 단거리
국제노선이 증편된다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의 뜻
을 받들어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입장
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와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
공사, 아시아나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로 김포시 등 인
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현재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면밀한 조사
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8 .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